

HIV감염인 한해 1천명씩 늘 전망,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

:: 김준명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

지난해 국내에서 에이즈에 새롭이 감염된 사람 수는 585명으로 이는 하루에 1.5명꼴로 감염된 셈인데, 이러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면 초만년 매년 신규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터라는 보건 당국의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라 하겠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전파를 통해 1,000만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그 중 약 3,000만 명이 사망함으로써 현재는 4,000만 명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 후진국과는 무관한 질병으로 생각한 적도 잠시 있었으나 우려한 대로 아프리카를 황폐하게 만든 후, 아시아 대륙에까지 상륙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 중 아시아에만 7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작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2010년까지 약 5,000만 명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내심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에이즈가 토착화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폭발적인 증가에 앞선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길한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신규 감염자의 약 반수가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그 간의 추측이 사실로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내 에이즈 예방 전략에 커다란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에이즈 역사 20년을 앞둔 이 시점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전환점으로서 우리 모두는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야만 하겠으며, 그를 통해서 이 무서운 역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겠다.

